

오늘의 기사판

제 61회 구강보건의 날 행사

행사 (9일)
▲제 61회 구강보건의 날 행사는 오전 10시 치평동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구강 보건상 시상식 및 시민구강건강강좌...

공연 (10일)
▲제 15회 전남도 연합회장이 생활체육 축구대회는 11일까지 담양군 남도대·담양공고...

전시 (10일)
▲테이블·아트상품 등 13점 전시. ▲윤보수 개인전 = 15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문화갤러리. 고 강용운·양수아·최종섭·김영길 화백 등 작품 전시.
▲무등골 예술시장 프리마켓전 '푸른6월'=13일까지 일곡갤러리.

역사속의 오늘

▲네로 황제 자결(68)
▲독일의 하인리히 국왕 군함으로 인천 도착(1899)
▲치아의 날 제정(1947)
▲한국일보 창간(1954)
▲제2차 통화개혁 발표(1962)
▲야당의 박한상 의원 길거리에서 피습(1966)
▲티토 유고 대통령, 학생 데모에 대해 잘못 시인하고 대학제도개혁 약속(1969)

뉴스퀴즈

15.꿈의 축구 제전의 월드컵이 오는 10일 새벽 1시(한국시간) 개최국 독일과 코스타리카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한달간 펼쳐집니다.
개막전이 열리는 도시는 독일 축구의 성지로 불리는 곳으로, 이곳에 있는 경기장인 알리안츠 아레나는 FIFA 월드컵 홈페이지가 전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경기장의 하나로 꼽혔을 만큼 독특한 디자인을 자랑하는 경기장입니다.
이 곳은 어디일까요?
① 뮌헨 ② 런던 ③ 파리 ④ 도쿄

참어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정수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문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111

검색절정 키워드

6월 둘째 주 인터넷 인기 검색어 1위는 대표팀이 독일월드컵 본선 첫 경기 토고전을 앞두고 치른 마지막 평가전인 가나전. 지난 4일 평가전에서 대표팀이 가나에게 1-3으로 완패한 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는 네티즌들의 다양한 의견이 봇물을 이뤘다.
'결전의 땅'독일에 입성, 최종 점검을 하고 있는 한국 대표팀에게 독일이 될까 아닐까. 대부분 네티즌들은 가나전을 빨리 잊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가나전이 끝난 뒤 실시된 한 온라인 설문 조사에서는 독일 월드컵 16강 진출이 힘들다는 의견이 70%를 넘기도 했다. 장맛비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예전에 비해 국민 기대치가 확 낮아진 것.
가수 하하와 기상캐스터 출신 연기자 안혜경의 열애설도 네티즌 사이에 오르내리며 화제가 됐다. 열애설이 터진 후, 하하는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안혜경과의 관계에 대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노출의 계절 라제리룩 유행

노출의 계절이 왔다. 올 여름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점점 더 몸매를 드러내는 추세에 따라 노출패션이 인기를 얻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마치 속옷처럼 보이는 모호한 옷을 걸듯처럼 입는 라제리룩이 화제의 검색어에 올랐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는 라제리룩을 돋보이게 입는 다양한 연출법, 어깨를 드러내면서 끈으로 색시미를 강조한 스타일 등이 선보이고 있다.
그럼 누가 출신 황정음이 CF에서 선보인 '어이상실 댄스'도 네티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황정음은 온라인 음악사이트 벅스의 CF에 출연, 5명의 남성을 앞에 두고 야릇한 시선으로 미니스커트 자락을 살짝 내려며 몸을 굽히는 댄스를 선보

였는데, '이유 없이 웃음을 주는 CF다'왜 어이상실인지 알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어이상실 댄스'라는 이름은 색시하면서 여딘가 모자라 보이는 어이없는 상황 때문에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테크노 필라와 최홍만이 지난 3일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K-1 월드컵프리 서울대회 수퍼 파이팅에서 지난해 K-1 챔피언 세미 슬트(33·네덜란드)를 관중(2-1)으로 꺾은 소식도 인기를 끌었다.
이와 5:31 지방선거 당선자와 FTA·현충일·666데이 등도 네티즌들의 클릭 세례를 받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최근 열애설로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안혜경.

주간 금상성 검색어 (네이트닷컴 제공)
1위 가나전, 2위 김완성, 3위 안혜경-하하, 4위 FTA, 5위 최홍만, 6위 아이상실댄스, 7위 선거당선자, 8위 현충일, 9위 666데이, 10위 라제리룩

15인 광일승 바둑대회
10 8 107 117 109 103 105 115 119 120
114 7 4 97 116 100 104 99 12 102
112 9 108 98 6 95 174 106 101
111 110 5 96 173
113 27 26
117 168
11 126 122 147 148
135 134 132 125 128 138
137 127 123 133 131
136 16 124 129
146 130 139
180 145 179
14 178
176
175 38 2
29 31 35 203 204 57 72
63 3 53 51
17 140 37 142 33 13 28 30 159 34 36 206 46 40 54 55
141 143 15 39 32
165 198
205 58 45 41
202 201

제15회 광일승 바둑대회
패인 '오버 페이스' 총보(1~206)
백 김영수(5단) <호남교사회>
흑 박정규(5단) <KT-A>
두 대국자는 항상 우승후보로 꼽힐 만큼 직장 바둑계의 강자로 알려져 있다. 우승하기 위해서는 실력이 강해야 하지만 '기철운산(拔七連三)'이라는 말처럼 대국 운도 따라줘야 한다.
박정규 5단의 패인은 대국 중반 패착을 두기는 했지만 우변에서 너무 심하게 당한 데 있다. 특히 흑 81로 한

바둑소식
서봉수 '국수'중의 '국수' 등극
서봉수 9단이 8일 스키야바둑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수전 50기 기념 역대 국수 초청대국 결승전에서 조훈현 9단에 200수 만에 백 불계승을 거뒀다.
서 9단은 지난 1988년 32기 대회를 내준 이후 18년 만에 조 9단에 대한 패배를 설욕했다.
서 9단은 이날 중반 조 9단에 역전을 허용했지만 백 136으로 우변 흑 모양을 없애는 큰 끝내기를 해 흐름을 뒤집었다.
서 9단은 하한석 9단과 루이 9단을 차례로 이기고 결승에 진출했다. 조 9단은 윤기현 9단과 제자 이창호 9단을 꺾고 결승에 올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9일(음 5월 14일 卯日)
子 36년생 허리띠 낄새가 환하게 개인 형상으로 중인의 협조가 새롭게 나타나다. 48년생 나이를 잊고 자신 있게 진행하면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 60년생 투자는 내일로. 72년생 신중 하면 좋으리라. 84년생 애인과 다룬다. 행운의 숫자: 10, 45
丑 37년생 부부간에 다툼 수도 있다. 49년생 좋은 협조자를 얻어 빠른 진흥을 한다. 61년생 흥한 일이 있을 수도 있으나 매사를 경계하라. 73년생 관세수가 있을 수도. 85년생 매사에 신중하면 손해를 막는다. 행운의 숫자: 04, 33
寅 38년생 직업과 자식에 불리한 문제가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50년생 부부사이에 믿음을 주라. 62년생 이웃 동료와 시비가 생길 수도. 74년생 투과 실이 들고나니 매사에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08, 25
卯 39년생 바리던 목표에 주변의 협조를 얻으니 금상화복이다. 51년생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마음길이 돌아오라. 63년생 규모를 축소하고 필히 실리를 추구하라. 75년생 오늘은 평안하지만 내일을 준비하라. 행운의 숫자: 05, 26
辰 40년생 사소한 실수로 관재가 있을 수도 있다. 52년생 화해를 먼저 하고 실리를 찾아보라. 64년생 있어도 없는 것처럼 지내라. 76년생 불면이면 큰 화를 면치 못하니 주변을 보살피고 나누어 가져라. 행운의 숫자: 13, 37
巳 41년생 우물쭈물 하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본다. 53년생 착실한 활동이 좋은 결과를 보게 된다. 65년생 불안한 마음은 버려라 뜻한 대로 되리라. 77년생 중심을 찾아서 자기 일에 집중하라. 뒷사람의 도움이 있다. 행운의 숫자: 06, 29
午 42년생 희망찬 하루가 되리라. 54년생 새 문서를 잡고 큰 기쁨이 있을 수도. 66년생 목표를 크게 갖고 함치 뛰여보라 큰 재물이 들어올 수도 있다. 78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고 생각보다 결과는 크리라. 행운의 숫자: 19, 40
未 43년생 미리미리 준비하면 체면을 유지한다. 55년생 생각했던 일들이 착실하게 추진된다. 67년생 근친자의 중상모략을 만날 수가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상책이다. 79년생 많은 수량이 필요하니 마음을 편히 하라. 행운의 숫자: 07, 36
申 44년생 과거는 과거일 뿐 새로운 일에 도전하라. 56년생 좋은 소식이 멀리 전해진다. 68년생 문서로 고민거리가 생길 수가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라. 80년생 좋은 물건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으니 주의함이 좋으리라. 행운의 숫자: 15, 30
酉 45년생 규모 축소, 집안단속, 매사에 주의하라. 57년생 생방이 양보하면 생방이 이득이다. 69년생 오늘은 인내함이 좋으리라. 81년생 하는 일마다 방해가 있으니 주변 먼저 단속하면 문제는 적어진다. 행운의 숫자: 09, 30
戌 46년생 뜻밖의 협조자가 나타나나 본인이 중심이다. 58년생 새벽녘의 손님을 조심하라. 70년생 급격할 마음의 변화가 생기니 기도하고 자신의 안정을 기하라. 82년생 오늘은 바쁜 하루가 되리라 단단히 각오하라. 행운의 숫자: 11, 34
亥 47년생 절제봉성 급박한 상황에서도 숫날 구멍이 생긴다. 59년생 기백과 용기로 진행하면 달성은 무난하다. 71년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두 득리를 찾아라. 재물이 새고 있다. 83년생 절제속에서 경직도 깨어 있다. 행운의 숫자: 20, 32

굿모닝 잉글리쉬 <664> 오하이오 니혼고 <664> 니하오 풍구워 <382> 한자 이야기 <282>

This will do
됐습니다(잘 돌아갑니다)
A: Do you think you can fix it?
B: Here you are. This will do.
A: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B: Never mind. It was really nothing.
A: 그것을 수리할 수 있을 것 같나?
B: 네, 여기 있습니다. 잘 작동됩니다.
A: 어떻게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B: 물론요. 별것 아니에요.
fix : 수리하다, (식사를) 준비하다, (음료, 요리들) 만들다(cook).
- What time shall I fix supper? 몇 시에 저녁 준비를 할까요?
- Let me fix a cup of coffee. 제가 커피를 뽑아 오지요.
Never mind = You're welcome.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 Thank you very much.

稅關(ぜいかん)で引っ掛かっちゃって
세관에 걸려버려서
A: 今(いま)から空港(くうこう)へ行(い)くそうですね。誰(だれ)かお迎(むか)えですか。
B: いいえ。この前(ま)日本(にっぽん)からノートパソコンを買(か)ってきたんですけど、稅關(ぜいかん)で引(ひ)っ掛(か)かっちゃって。
A: でも、自分(じぶん)で使(つか)うものなんでしょう。
B: ええ。それが新品(しんぴん)なんですけど、箱(はこ)に入(い)れたまま持(も)って來(き)たのがまさかだったみたいで...
A: 지금부터 공항에 간다고 합디다만, 누구 마중 갑니까.
B: 아니요, 일전에 일본에서 컴퓨터를 사 왔습디다만, 세관에 걸려버려서.
A: 하지만, 자신이 사용하는 것이지요.
B: 예에, 그것이 신품입니다만, 상자에 넣은 채로 가지고 온 것이 시를렀던 것 같아요.
空港(くうこう) : 공항
誰(だれ)か : 누군가
お迎(むか)え : 마중
ノートパソコン : 노트북

給我兩張成人票
어른표 두 장 주세요
A: 給我兩張成人票, 給我兩張成人票, 給我兩張成人票.
B: 兩張50元.
A: 用這個票可以看所有戲院嗎?
B: 當然.
A: 戲院票每張多少錢?
B: 50元.
成人票 : 성인표
兒童票 : 어린이표
兒童 : 어린이

啓發(계발)
인도할 계, 보낼 발
계발(啓發)은 지능을 열어 인도하는 것, 즉 자발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이다. '계'(啓)나 '발'(發)이 하나 모두 '이끌어서 알게 한다'는 의미이다.
계(啓)는 戶(戶)+發(發)으로, 닫혀있는 문(戶)을 손으로 밀어 여는 것, 또는 문을 열듯 닫힌 입을 열어 진술하게 하는 것이다. 발(發)은 弓(弓)+發(發) : 音符로, 활을 당겨 쏘는 것이다.
공자는 "배우려는 사람이 알고 싶어 애태우지(憤) 않으면 이 끌어(啓)주지 않으며, 말로 표현함에 애태우지(憤) 않으면 말 해주지 않는다." (不憤不啓, 不悱不發)고 하였다. 계발의 어원이 되는 말이다.
여기서 '분'이란 가르침을 받아서 대부분 이해한 듯하면서도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서 애태우고 있는 상태이다. 또 '비'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표현해서 상대를 설득하고 싶는데 정확한 표현을 찾지 못해 조바심을 내는 상태이다.
요컨대 스스로 해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어려운 부분에 부딪혀 애를 태우고 있는 상황이다. 계발은 이럴 때 비로소 도움을 주어 교육효과를 드러낸다.